

언론동향(11. 29.)

《언론보도 목차》

1. (세계일보) 경기, 남북교류 노하우 공유...강원, 올림픽 공동개최 박차 2
2. (경기신문) “수도권 5개 시도 관광객 유치에 최선 다해야“ 3
3. (경기일보) 평화·통일 기원하며 청정 DMZ 달렸다 4
4. (경기일보) ”4대 관광벨트 구축·VR 투어 추진해야 5

경기, 남북교류 노하우 공유... 강원, 올림픽 공동개최 박차

(2024 동계청소년)

2018년은 남북 관계가 급진전을 이룬 해다. 북한의 전격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새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대표적 마중물로 꼽힌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장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 문화·스포츠를 통한 소통도 사실상 단절됐다. 하지만 대내외적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사업은 언제든 재개될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각 지자체는 이에 대비해 체계적인 로드맵과 중장기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절경지 주요 지자체인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는 물론 안강하구 인접지역인 서울사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돼 정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주요 지자체 남북교류 추진 방향

비판	주요 계획
서울	남북 통일성 회복 시민 참여하는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역사유적 공동발굴, 국제사회 소통
경기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심 DMZ 일원 생태보전 및 지속가능 발전, 관광인프라 구축과 활성화
강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 강원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개최, 하늘길 항공 개성
인천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서해남도 남북공동 어부어망 살림,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담당 현황

비판	담당부서	단위	대전	남북교류팀	팀
서울	남북협력추진단	국	서울	지자체협력팀	팀
경기	평화협력국	국	대구	남북교류팀	팀
강원	평화지역발전본부	국	울산	평화협력담당사무관	팀
인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과	자료: 각 지자체		
부산	남북협력기획단	과			
광주	평화기반조성과	과			
제주	평화대외협력과	과			

'한반도의 봄' 준비하는 지자체들

인천=김승훈 기자, zshkang@segye.com

●남북 공동발굴 추진 서울시-교류사업 공동 창구 마련한 경기도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남북의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평화·번영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의 공감대 확산이 핵심 기조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9~10월에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6차례나 열었다. 사회적 대화는 보수·중도·진보 등 이념과 입장이 다른 서울시민 1300여명이 만나 상호 이해 및 이견 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광역·기초단체 50곳 공동창구 설립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한 강원 7종목 15개 경기 북서 진행 물밀접속
서울, 역사유적 남북공동발굴 등 추진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착공

지자체 활동범위 제한·재정투입 한계
일각선 "비핵화 없이 시기상조" 지적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강을 사이에 두고 개풍군과 불과 1.4km 떨어져 북녘 땅을 최단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김포시 예기봉 평화생태공원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원 "체육교류 통해 신뢰 구축"-북한 교류 관련 추구하는 인천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 풀고 싶을 트는 역할을 했던 강원도는 체육교류에 매진하고 있다. 제13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유치가 확정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준비 중이다. 비정치적 교류인 만큼 남북 간 신뢰관계 구축이 한층 수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릉·정선·원산 등 남북복합 강원도를 대화장소로 7개 종목의 15개 경기를 펼친다는 구상이다.

강원도는 다양한 재능을 가동해 북한과 물밑에서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북한, 중국 등과 아리스포츠컴 국제유소년(U-15)



올해 1월 올종-신도선착장에서 열린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축구대회에 10여년 동안 참가하는 등 실질적 체육교류를 지속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춘천시 의암빙상장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가 열렸다.

인천시는 중장기 일정으로 '2021~2025 평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조례를 제정해 단체장이 5년마다 방향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북한 해주-개성공단과 이어져 인천과 북한의 물류교류망으로 활용될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연도교(길이 4.05km, 폭 15.5m 왕복 2차로) 공사가 최근 본격화했다. 향후 2단계 신도-간화 11.4km 구간으로 이어진다.

인천시는 동시에 강화-교동과 서해5도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 NLL(북방한계선) 주변 '남북 공동어구어 관리사무소' 설치, 평화학교 설립 등 커다란 틀 아래서 세부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시는 자연·생태, 역사·인문, 관광 등 풍부한 자원을 평화 중심도시로 거듭나는데 심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아밖에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국제공항을 서방 세계와 북한 교류의 관문 또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하려는 정책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상투적인 전시성 교류사업 대신 내실 다져야"
자금의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속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27일~12월4일 만 19~69세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발간 '남북교류협력 장기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58.1%)의 응답자가 '서울시 차원의 사업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산업(24.0%)을 꼽았고 사회문화교류(20.7%), 통일문화조성(18.2%), 보건협력(16.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 우선순위는 도시 인프라와 관광산업, 보건으로, 에너지산업 등의 부한 지원을 평화 중심도시로 거듭나는데 심

각각에서는 지자체의 활동 범위와 실천이 매우 제한적이고, 행·재정적 측면에서도 여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계를 지적한다. 그렇다보니 일부에서는 타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베껴거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숙함을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점 등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적 특색이 묻어나는 개성적 내용보다 유사-중복 및 일회성, 전시성 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한다.

조재욱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중앙정부들과 지자체정부 보탬업 방식의 조화는 지자체 교류사업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며 "이는 경제적인 남북관계의 필요를 느끼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어 "동시에 지자체는 독자성 및 공급능력, 북한의 수요 등이 연계된 가운데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서울·인천·강원·충북)

“수도권 5개 시도 관광객 유치에 최선 다해야”

한류관광 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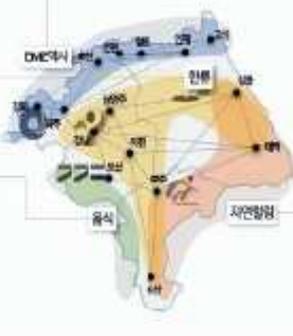
- 드라마, 영화, K-pop 등 한류의 중심 대동맥이 흐르는 권역관광지구
- 서울-경기-강원-충북 지역연계관광



음식관광 벨트

- 사계절을 따라 지역 특산물 제철음식과 함께 떠나는 맛기행관광지구
- 인천-경기-강원 지역연계관광





DMZ역사관광 벨트

- DMZ철역인 피의 세계 유일 분단국의 역사를 체험하는 관광지구
- 인천-경기-강원 지역연계관광



자연힐링관광 벨트

- 산·바다·섬·계곡, 황금령에서의 힐튼 체험 힐니스 관광지구
- 경기-강원-충북 지역연계관광



경기·서울·인천·강원·충북 등 수도권 5개 시도가 '위드 코로나'에 따라 증가할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4대 관광벨트 구축, VR(가상현실) 투어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들 5개 시도는 지난 26일 이전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수도권 5개 시도 관광협력사업 활성화 및 향후 발전 방향'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5개 시도는 지난 1999년 수도권과 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매년 광진흥 공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 이남 ▲2021년 공동사업 결과 ▲수도권 권역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2022년 사업계획 등을

위드 코로나로 관광계 증가 예상 관광벨트 구축·VR 투어 등 제시 5개 시도 연계 테마관광사업 조성

발표했다.

경기관광공사가 발표한 광역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주요 관광객이 2020년 초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해외여행객 대비 비중이 커진 내국인 관광객 대상 사업 확대, 언택트(비대면) 콘텐츠 개발, 5개 시도의 정체성·지역성을 살릴 문화·예술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구체적 중점기 사업으로는 ▲5개 시도

연계 테마관광사업(문화관광자원 유형별 관광벨트 조성) ▲가상현실(VR)로 보는 안전한 언택트 문화관광지 ▲문화기행 확장 현실(XR) 버스 투어 등을 제시했다.

관광벨트로는 ▲인천 강화도에서 파주, 포천, 연천을 거쳐 강원 고성으로 이어지며 분단국 역사를 탐험하는 비무장지대(DMZ) 역사관광 벨트 ▲서울 강남, 오산(아스달연대기 촬영지), 충남 논산(미스터 션사인 촬영지) 등을 포함하는 한류관광 벨트 ▲인천 소래포구, 이천 쌀문화관 등 지역 특산물과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관광 벨트 ▲강원 속초부터 충북 제천까지 산·바다·계곡을 두루두루 다니는 자연힐링관광 벨트 등 4개가 전라됐다.

이서은 기자

평화·통일 기원하며 청정 DMZ 달렸다

'2021 Tour de DMZ' 성료

20~28일 언택트 레이스
아름다운 자연 등 만끽

"비무장지대(DMZ)의 풍광을 눈에 담으며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페달을 밟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 통일부가 후원한 '2021 Tour de DMZ(투르 드 디엠지)' 대회가 김포·파주·연천 일대에서 전국외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투르 드 디엠지는 남북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는 종전선언 수진에 내안 참가자들의 기내와 열정을 높이며 의미를 더했다.

투르 드 디엠지는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 경기도가 처음 시작한 행사로 DMZ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올해 투르 드 디엠지는 앞서 추진된 대회와 다르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언택트 레이스'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일 김포 합성공원과 파주 임진강역, 연천 연천공설운동장 등 3곳에서 마을을 울러 28일까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희망하는 코스에 따라



'2021 Tour de DMZ' 언택트 자전거 라이딩이 열린 지난 27일 오전 코스 중 한 곳인 파주시 임진강역 인근 출발선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전 손을 흔들고 있다.

각자 김포와 파주, 연천 중 원하는 장소를 개별적으로 찾아 레이스에 참가했다. 김포 코스는 합성공원에서 출발해 뒤 20km는 김포시이드CC 인근에서 반환, 40km는 문수산로 337 인근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짜여졌다. 파주의 경우 임진강역부터 20km는 나하리 182-8번지 인근, 40km는 새오리로 89-89번지 인근에서 반환하

는 코스로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연천 코스는 연천공설운동장에서 20km는 기차길 표지판 80열 도로, 40km는 연시로 1622-1번지 인근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것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1회당 49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오전과 오후로 나눠 코스별 하루 2회 출발하는 방식

으로 개최됐다. 이에 따라 일정을 정해 자율적으로 현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출발해 코스를 내달렸다. '비경쟁 레이스'로 진행된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태초 자연이 살아숨쉬는 청정지역 DMZ 일원을 달리며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감상하는 등 기쁨을 만끽했다. 김정학이평회까지

“4대 관광벨트 구축·VR 투어 추진해야”

경기도 등 5개 시·도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증가할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4대 관광벨트 구축과 VR(가상현실) 투어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도와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는 지난 26일 이전에서 ‘5개 시·도 관광협력사업 활성화 및 향후 발전 방향’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5개 시·도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해 1999년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매년 관광진흥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관광공사가 발표한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주요 관광객이 지난해 초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해외 여행객보다 비중이 높아진 내국인 관

경기·인천·서울·경원 등 5개 시·도 관광사업 활성화 용역결과 공개

광객 대상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언택트(비대면) 콘텐츠 개발, 5개 시·도의 정체성·지역성을 살릴 문화·예술 연계 상품 개발 등이 주요 개선 방향으로 꼽혔다.

구체적인 중장기 사업으로는 ‘5개 시·도 연계 테마관광사업(문화관광 자원 유형별 관광벨트 조성), ‘가상현실(VR)로 보는 안전한 언택트 문화관광지’, ‘문학기행 확장현실(XR) 버스 투어’ 등이 제안됐다.

이 가운데 유형별 관광벨트는 ▲인천 강화도에서 파주·포천·연천을 거

쳐 강원 고성으로 이어지는 미주강 지대(DMZ) 역사관광벨트 ▲서울 강남·오산(아스달연대기 촬영지)·충남 논산(미스터 션사인 촬영지) 등을 포함하는 한류관광벨트 ▲인천 소래포구와 이천 썰문화관 등 지역 특산물과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관광벨트 ▲강원 속초부터 충북 제천까지 산·바다·계곡을 두루 다니는 자연힐링관광벨트 등 4개로 정리됐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5개 시·도를 알린 여러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5개 시·도의 소통 및 화합의 계기이자, 수도권외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